



묵어



성태웅
건국대 교수
본지 논설위원

눈먼 불심

불기 〇〇〇〇년 부처님이 대한민
국 땅에 현신하셨다. 그리고 좀 슬프
고 화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한국 불자들이! 어찌 이리도 나
를 곤혹스럽게 만드는가? 내가 중생
이 바로 부처라고 한 것은 그대들 속
에 있는 부처를 드러내라 한 것인데,
그대들은 부처를 중생 수준으로 끌
어내리고 있어. 불사(佛事)라는 이름
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대 이름 걸고 한다는 것이 창피스러
워서. 종종 만나는 예수나 공자에게 정말 낯을 들 수가 없다
구. 내가 여기 이 땅에 있다면 정말 서둘러 하고 싶은 일들은
지연으로 끌렸는데, 왜 그런 일은 없는지 모르겠어. 꼭 내 모
습을 조성하거나 질 짓는 등등의 일들을 해야 내가 기뻐하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깔봐도 보통 깔보는 것이
아니잖아? 물론 그런 일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
야. 그러나 더 급하고도 절실한 일은 제쳐 두고 그런 일에 매
달린다면 결코 청정밭을 일기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내가
복을 내려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에게 복을 비는 것까지는
그냥 내가 참도록 하지. 어차피 선업을 쌓으면 선과를 얻을
게고, 또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테니까. 그렇지만 나를 곤혹
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을 비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아? 뭐? 그런 일을 해야 불심이 모인다고? 그건 무슨
불심인지 모르겠네. 그건 눈먼 불심이야. 눈 감고 귀 막고 하
는 일을 불심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내
가 곤혹스럽다 못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일은 정말 없도록
해 주게! 내 이름 걸고 하는 일에 걸맞는 그런 불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걸 보고 싶네!"

부처님 저도 이런 불경스런 상상을 하는 일은 정말 없었으
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은 스승들이 세상 인연을 마
감하셨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거의 매주 큰스님
들의 원적 소식을 접했다. 산 같은 슬픔이 밀려
드는 소식들이 이어 지는 가운데 시나브로 해는
바뀌고 겨울바람은 차가만 하다.

세상에 의지할 스승이 있다는 것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다. 반대로
스승들이 한 분 두 분씩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
은 황량한 들판에 버려지는 듯 허전하고 서늘픈
일이다.

금년에는 10여 분의 큰스님들이 우리 곁을 떠
났다. 그래서 어느 해 보다 우리들 주변이 공허
하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 지고 경제 불인과 테
러, 질병의 공포는 그침이 없는데 우리들에게 위
안과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들마저 세상을 떠나
가니 온 세상이 적막강산 그 자체다.

그런데 큰스님들의 떠남은 떠남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불교는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육신이라는 가아(假我)를 벗
고 본래의 진정한 마음자리로 회귀하는 하나의
경과조치 쯤으로 본다. 본래정성의 자리로 돌아
가는 것이기에 불교에서는 죽음을 열반이라 한
다. 열반, 즉 니르바나는 번뇌와 망상의 불을
'혹' 불어 끈 그 순간의 절대적인 고요와 아무런
분별의 여지가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래서 선사들은 죽음을 아무렇지 않은 일, 밥 먹
고 쉬는 일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죽음을 초월하는 가르침, 이것이야말로 불교
의 특별한 가르침이다. 육신의 무상함을 극복하
고 또 다른 왕성으로 접어드는 길의 정점이 죽
음인 것이다. 그 자리에서 실로 초연할 수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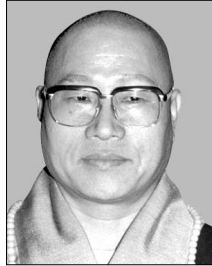
말로써 말이 많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다.
내가 짧은 대통령의 말이 가슴거리기 되는 현실
에 묵어 메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대외에 애써서 민중정치는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나는 정치라고 할 만큼 말은 정치행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정책결정의 자
원이고 결단의 상징이다. 따라서 말이란 그 자체
로서 정치적 생명력을 갖는다. 다만 정치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말은 국민의 말과 동일시되고 국
민을 위한 것으로 구현될 때 진정한 생명력, 즉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마당에서는 안 될 말이 될
말을 구축하는 현상이 지배적이어서 안타까
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인 가운데는 우리의 정부
제도를 의원내각제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행태
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구조와 문화의 틀 안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못해먹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힘들다는데 공
감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사실
은 우리의 제도는 단원의 대통령중심제라는 점
이다. 대통령에게는 실권기간이 없으며 시행착
오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말에 대한 책임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지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대
통령의 말을 놓고 듣는 이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
는 데는 의문이 간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책
임의 중심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 정치현실은 권력 동기에 사로잡힌 의회정치
와 개혁동기에 미숙한 대통령 정치 간의 충돌현



특별기고

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큰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스님이라고 하는 것도 생과 사
를 둘로 보지 않는 까닭이다. 큰스님들의 죽음을
입적(入寂) 적멸(寂滅)의 세상으로 들어 감(甘) 원적(圓寂)
원한적(寂滅)에 들어 감(甘) 시적(示寂) 적멸(寂滅)을 보인
등으로 표현 하는 것도 니르바나의 경지를 드러
내 보이는 하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허망함을 말로만 떠드는 것은 그 자체
가 깊은 병이다. 허망한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삶이어야 죽음의 순
간에 이르러서도 깨끗할 수 있는 것이다. 살아
서 극락을 좋아 하지 않고 죽어서도 지옥을 두
려워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장부의 살림살이인
것이다.

큰스님들이 원적에 이르러 남기는 '열반개'
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룬 공부의 가장 마지막
결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일종의 수행보고
서인 셈이다. 많은 선사들의 열반개는 삶과 죽

음을 초월한 기상과 분별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담겨 있다. 주머니 속에 감춘 송곳처럼 뼈죽
죽 드러나는 그 기운이야말로 한 선사의 일생에
걸친 수행의 깊이로 넓이다. 그래서 큰 스님들
이 원적에 이르러 한 마디 토하시는 가르침을
우리는 얼른 행겨야 한다. 그 활발한 가르침, 비
록 문자를 빌어 표현되긴 했지만 문자 이전의
원음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

12월 13일 백양사에서 원적에 든 서운 스님은
"운문에 해는 긴데 이르는 사람 없고/ 백운산정
에 눈이 분분하네/ 한번 백학이 날으니 천년동
안 고요하고/ 술을 부는 술바람 붉은 노을을 보
낸다"고 최후 일생을 토했다. 그리고도 모자라
좌탈(坐脫)의 기연으로 가르침을 한 번 더 강조
했다. 온 몸을 동원해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의 호흡을 멈춘 순간(어디 호흡만

멈춘 것이겠는가? 이 중생계의 모든 번뇌와 분
별을 다 멈추어 버렸으리라) 이미 큰스님은 저
적정열반의 세상에서 천진한 웃음을 짓고 계셨
을 것이다.

큰스님들의 원적은 슬픔이기보다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형상의 이별에 대한 슬픔에 침잠
되어 온 몸으로 남기신 가르침을 잃는다면 그것
이 오히려 슬픔이다. 큰스님들의 원적 그 자체
가 지고한 가르침의 마지막 표현이라는 점을 잊
어서는 안 된다. 육신이라는 형상에 집착해 그
형상을 볼 수 없음을 슬퍼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자신의 형상도 머지않아 허물어 질 것
아닌가.

스스로의 형상이 허물어질 때 자신은 과연 어
떤 모습을 취하고 그 순간을 맞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중생들이 진정 슬퍼해야 할 일은 스승의 모습
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순간까지도 온몸
으로 가르침을 배우시는 스승들의 은혜를 모르
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스승들이 떠난 자리
에 슬픔의 꽃을 바치는 것으로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 자리에 채워야 할 것은 스
승들의 가르침을 옹골케 이어받아 중생계의 어
둠을 물리치고 극락의 꽃을 피우려는 부단한 노
력의 팍팍함이다.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물구나무를 서서 죽
는 그 장면에 감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러
한 연출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
차리는 일이 급한 것이다. 이걸 안다면 사리가
맺고 나았느냐, 좌탈이나, 입방이나 하는 외형에
지나치게 끄달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어야 한다. 그 다음 권위성이 담보되어야 한
다. 중심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때 설득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또한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행위인과의 일관성이 지켜질 때 비로소 말의 책
임은 인정되는 것이다. 신뢰와 권위는 결국 책임
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정치지도자는 무릇 말
하기를 무서워하고 듣기를 즐겨해야하는 공리
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역사를 만드는 권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이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대통
령이 하루 속히 정치력을 발휘하여 이 위기를 개
혁의 기회로 돌리며 부패와 낭비가 만연된 이 모
순한 정치 사회구조를 개혁해주시기를 열원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검찰과 특
검수사를 앞두고 이른바 '대선자금 1/10살'로
차별화를 주장하는 말은 대통령의 덕목에 부합
되지 어려운 부분이다. 본인이 직접 "지금처럼
흔들리는 대통령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고 말
할 때 들는 이에 따라서는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오래 못 간다."로 곡해할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어느 때보다도 정통성이 확보된 대통령으로
서 휘둘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으로 평
가 받게 되기를 기원한다. 민족적 지도자의 어
록이 후대를 위한 고귀한 교본이 된 예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이우정

원광대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

대통령의 언행

상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혼란기라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본의에 관계없
이 많은 국민을 당혹케 할 때가 많다. 몇 가지 예
를 들어보자.

첫째, 대통령의 말에는 부정적이고 도발적 표
현이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불안케
하는 언사는 삼가야 마땅하다. 지도자의 말에는
비전이 살아있고, 호소력이 있어 감동을 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제도이지 개인이 아니다. 국민
의 합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물러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언행은 국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일단 발설된 말은 사
회내의 각 부분들이 분석하고 대응하기 마련이
므로 결정적인 사회 정책적 환경요인을 구성하
게 된다.

둘째, 대통령의 말은 온라인상에서의 치밀한

정치과정을 거쳐서 나와야하며 오프라인에서
급히 행진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될 일
이라 생각된다.

셋째, 국정의 홍보는 사안별, 분야별로 직제와
직급에 맞추어 적절히 대변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답답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말이 다다
익선일 수만은 없을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절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명성 발언의 동기는 가급적 피해야 한
다. 대통령의 말은 해명되기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말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떠나서
우선 국민들에 의하여 납득되고 공감될 수 있는
공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는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이 갖춰야 할 조건 가운
데 신뢰성이 우선이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안정제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가능성이며 희망

삼보일배 세계 10대 환경뉴스 선정



새만금 갯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가
국내외 저명 환경운동가와 환경학자 등이 선정한
'2003 지구촌 10대 환경뉴스'에 포함됐다. 레스터
브라운 월드워치연구소 창립자, 리카르도 나바로 지구의벗 국
제본부의장, 최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최재천 서울대 교수 등
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지구촌 환경뉴스는 환경재단과 시
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11월말부터 12월 16일까지 선정작업
을 벌여 정해졌다.

장군속미

영화사의 조변석개



전통사찰인 통영 영화사주지 선곡가 조계종 총
무원의 협의 없이 케이블가 설치 청원서를 통영시
의회에 접수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년여간
수행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케이블가 설치 반대를 주장해 온
영화사는 청원서에서 "미륵산 불교문화재 환경정비와 관광활
성화를 위해 유치를 계획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힌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 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
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순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
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목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목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12월 넷째주, 다섯째주 (월~금)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 알려드립니다 ◆

2004년 1월5일(월요일)
동방파동명상연구소 서울사무소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